

# Creatio Ex Nihilo?

배 철 현\*

## 目 次

- I. 들어가는 글
- II. '한글 성서 번역들' 안에서의 '창조'
- III. 초대 교회의 해석
- IV. 성서에서의 창조
- V. 고대 근동의 『에누마엘리쉬』
- VI. 고대 근동자료에서 본 창세기  
1장 1-3절 번역

## I. 들어가는 글

신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고백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그리스도교,<sup>1)</sup>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이다. 이 세 종교는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하여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의견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창조는 여러 신들이 아닌 한 명의 유일한 신에 의한 창조이며 이미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나 신의 자연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creatio ex deo),<sup>2)</sup> '무에서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절대 창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고대 근동의 종교와 언어

- 1)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라는 명칭보다는 '그리스도교'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겠다. '기독교'라는 용어가 '가톨릭'과 대비하여 '개신교'를 의미하는 단어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개신교가 가톨릭교 전통에서 파생되기 전 상태를 다루는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다
- 2) '신으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deo)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간과 신의 질적이 차이를 부정하는 창조관이다. 유일신교의 창조는 '신에

조'를 주장해왔다. 그리고 또한 '창조'는 신의 자발적인 사랑과 은총의 행위였다. 신은 맨 처음에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유일신교의 전통에서 신의 '창조'에 대한 이해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유일신적 신관과 주변의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다신론의 신관의 비교-연구하여 추론 할 수 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 도시, 우르 출신이며, 후에 유다 민족은 바빌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 기원전 6세기초에 포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신관과 문화는 이스라엘 신앙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교의 창조 개념인 '무에서 유'의 창조' 발생과정을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과 교부학자들의 논거에서 추적하고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창조에 관한 교리인 '무에서의 창조'가 성서적으로 가능한 이론인지 고대 근동 자료를 통하여 살펴 보려한다.

## II. '한글 성서 번역들' 안에서의 '창조'

'창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근 출간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은 창조를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음으로 정의하고 있다.<sup>3)</sup> '창조'라는 단어는 '전에 없었던', 즉 '무' 상태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창조'의 의미가 창세기에서 발견되는가? 창세기는 소위 '무에서 창조'를 말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처음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공동번역 성서』나 『표준새번역』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널리

---

의한 것'(by God)이지, '신으로부터(out of God)'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플로티누스(Plotinus: 205-270)의 신플라톤주의에 기초를 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라는 낮은 단계는 '신'이라는 높은 단계에서 유추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이 쉬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와 에리우게나(Johannes Scottus Eriugena)와 같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그리고 알-파라비(Al-Farabi)와 이븐 시나(Ibn Sina)와 같은 이슬람 신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대부분의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 학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창조관이었다.

3) 『표준국어 대사전』, 하, 두산동아, 1999, p. 596.

읽었던 『관주성경전서』<sup>4)</sup>을 살펴보자.

『관주성경전서』

-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관주성경전서』에서는 구문론상 1절이 독립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sup>5)</sup> ‘무에서 창조’ 한 것처럼 보인다. 2절과 3절은 1절에 대한 일종의 부연설명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이 성서 번역을 근거로 ‘무에서의 창조’ 교리를 추론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무에서 창조’라는 개념이 이러한 성서 본문의 해석을 유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최근 대한성서공회의 한글 번역서인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어떠한가?

1993년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성서전서 표준새번역』의 창세기 1장 1절-3절의 번역은 『관주성경전서』와는 다르게, 그 번역에 다음과 같은 각주를 첨가하였다.

『성서전서 표준새번역』

-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sup>6)</sup>

그리고 『성서전서 표준새번역』은 1절 전체와 2절 ‘하나님의 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각주를 첨가하였다.

- 1절에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4)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56, p.1.

5) 그리스도교의 신명을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배철현,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기독교사상>> 520권, 2002/4, pp. 189-198을 보라.

6) 『성서전서 표준새번역』, 1993, 대한성서공회, p. 1.

## 2절의 또는 ‘하나님의 바람’ 또는 ‘강한 바람’

우리가 『표준새번역』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각주를 통해서 다음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다. 첫째, 성서는 각주가 필요할 정도로 난해한가? 문장의 의미가 성서 본문과 각주의 번역이 다른데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두번째 질문은 ‘창조’의 개념에 관한 질문이다. 성서본문의 번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전통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시간의 처음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각주의 번역,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가 2절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에서 창조’ 혹은 ‘혼돈으로부터 창조’가 올바른 해석인지 살펴볼 것이다.

## III. 초대 교회의 해석

우리가 생각하는 ‘무에서 창조’라는 개념은 초대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의 글에서 시작된 것 같다. 초대 교회는 당시 대표적인 철학시조인 플라톤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오리겐주의에 대항하여 초대교회의 정신적 근간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창조에 대한 이론을 펼쳐야 했다.

기원후 2, 3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신앙을 ‘그리스 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때로는 ‘그리스 철학의 내용’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적응하려는 과정의 자연스런 몸짓이었다. 그들은 창조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플라톤의 『티마에우스』에서 찾았다. 플라톤 체계에서의 세계 조물주인 ‘데미우르쥬’(Demiurge)는<sup>7)</sup>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플라톤의 ‘데미우르쥬’는 ‘혼돈’으로부터 우주물 창조한 신이다. 그리스어 *demiourgos*에서 파생한 단어로 원래의 의미는 ‘공공의 일꾼’(public worker)라는 의미이다. 이 신관은 후에 영지주의(Gnosticism)과 마니교(Manichaeism)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신은 ‘악’의 근원이기도 하다.

[티마에우스]

(29e) 조물주는 그의 자비로 모든 사물들이 그 자신과 비슷하게 되기를 원한다.<sup>8)</sup>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창조주가 플라톤 철학의 조물주와 동일시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조물주'는 플라톤 철학의 '형태'에 종속되며 실제로 창조 자체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후에 영지주의 세계관에 의하면 창조된 세계인 '물질'은 악이며 인간의 악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육체에 가둔 플라톤의 조물주는 인간을 육체의 육망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그리스도교의 창조주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조물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며 그는 '무에서 창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무에서의 창조'에서는 창조이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창조관은 신약성서와 초대 교부들의 생각이었다.

#### 가. 플라톤주의에 대한 변증

플라톤주의의 우주관에 의하면 물질세계는 신의 존재함에 따르는 부수적이며 당연한 산물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2-3세기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은 하나님은 그의 의지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서 내에서의 증거는 회박했다. 오히려 초대교부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았다. 창세기 1장 1절을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혼돈에서 창조'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성서해석이 플라톤의 창조관과 유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은 자구책으로 창세기가 플라톤의 이론보다 훨씬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저스틴 마티(?-165년)<sup>9)</sup>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기원후 160-215년)<sup>10)</sup>는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혼돈 물질에

8) Plato, *Timaeus* 30A; 48E-51B; F. M. Cornford, *Timaeus*, Library of Liberal Arts, 1959.

9) *Apologia* 59; W. A. Shortwell, *The Biblical Exegesis of Justin Martyr*, *Studia Patristica*, 1965, p. 30.

10) H. Chadwick, *Early Christian Thought and the Classical Tradition*, Clarendon, 1966, p. 31-65.

서 질서를 세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마티와 클레멘트의 창조관이다:

(도표 1) 혼돈-----> 창조

그러나 당시 모든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이 ‘혼돈에서의 창조’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타티안(2세기),<sup>11)</sup> 안디옥의 테로필루스(2세기)<sup>12)</sup>, 그리고 터툴리안(200년경)<sup>13)</sup>은 창조주의 절대적 자유를 강조하여 ‘무에서의 창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은 『외경』과 『신약성서』는 ‘무에서의 창조’를 기술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대한 ‘무에서의 창조’에 대한 설명은 외경 『마카베오 후서』 7장 8절, 신약성서 『로마서』 4장 17 후반절, 그리고 『히브리인서』 11장 3절에서 찾을 수 있다:

『마카베오 후서』 7장 8절: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은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로마서』 4장 17절 후반 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히브리인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11) *Orations to the Greeks* 5.1-3; G. F. Hawthorne, "Tatian and His Discourse to the Greeks",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57(1964), pp. 161-188.

12) *Autulicus* 2.4.; R. M. Grant, *Theophilus of Antioch: Ad Autolycum*, Oxford UP, 1970. 테로필루스는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당시 이방 종교를 비판하듯이 이방 우상숭배와 황제 숭배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이방인들의 비도덕성을 대비시켰다.

13) *Against Hermogenes*. 21.2-3. 터툴리안은 영지주의에 반발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방어하기 위한 책을 저술했다. 그리스도교의 성서, 전통, 이성을 위한 「이단자에 대한 처방」, 신론을 위한 「헤르모게네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론을 위한 「그리스도의 육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한 「영혼에 관하여」, 마지막 심판을 위한 「육체의 부활에 관하여」가 그것이다. 이 논박들이 「마르시온에 대항하여」라는 책에 들어있는 각권들이다.

(도표 2) 무---> 창조

아마도 『칠십인역』<sup>14)</sup>의 번역은 이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듯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칠십인역』

1.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2. 그때 땅은 무형하였고 비었으며 어둠은 심연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위에서 움직였다.
3.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셨다: '빛이 생겨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다.

이 번역은 『관주성경전서』의 번역과 거의 일치한다.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의 언어는 아람어였다. 당시 팔레스티나 지역의 회당에서 사용되던 기원 후 2세기 아람어 번역본인 『타르굼』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타르굼 옹켈로스』

1. 옛날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 (그 때에) 땅은 황폐하고 텅 비어있었으며 어둠이 심연 위에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 나온 바람은 물위에 불고 있었다.
3.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sup>15)</sup>

이러한 전통은 후대 초기 중세교회의 성서 번역본인 『불가타』<sup>16)</sup>에서도

14) 고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번역본인 『칠십인역』은 기원전 150년경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번역은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그러나 번역본 제목은 「칠십인역」이라고 명명하였음)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기원전 283-246년)왕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그리스어 번역본을 소유하고 싶다는 요구에 의해 쓰여졌다고 전한다. 『칠십인역』은 이집트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가 고대 근동 전역을 정복하며 퍼뜨린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라는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코이네 그리스어'는 헬레화된 유대교의 언어가 되었고 외경중 「제1,2 에스드라서」, 「토비트서」, 「유딧서」, 「에스더서」 등 많은 외경들이 대부분 코이네 그리스어로 쓰였다. 후에 「신약성서」도 자연히 이 언어로 쓰이게 되었다.

15) 배철현, 「타르굼 옹켈로스 창세기」, 한남성서 연구소, 2001, p. 115.

16) 불가타는 유세비우스 제롬(347-420)의 작품이다 제롬은 교황 다마스쿠스 I세가 복음서의 고대 라틴본을 전례를 위한 교정 명령을 받고, 그리스어 복음서를 번역한 고대 라틴어 번역을 평민들의 라틴어인 「불가타」로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마스쿠스 I세가 죽은 후, 베를레헴에 있는 수도원에서 그 후 20년 동안 성서 전체

마찬가지 이다:

1. In principio creavit Deus caelum et terram
2. terram autem erat inanis et vacua et tenebrae super faciem  
abyssi et spiritus Dei ferebatur super aquas
3. dixitque Deus fiat lux et facta est lux.

이 번역은 거의 『칠십인역』을 기초로 번역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위의 『칠십인역』과 거의 동일하다.

### 나. 영지주의에 대한 반응

영지주의는 초기 그리스도교 창조관에 위협적인 이론이었다. 영지주의에서는 플라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유일신 하나님과 조물주를 구분하였다. 유일하며 높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구약성서의 창조주인 조물주가 창조세계를 악화시켰다고 믿었다. 특히 리용의 이레니우스(Irenaeus: 115-202)는 『이단 논박』(Against Heresies)<sup>17)</sup>의 첫두권의 책에서 유일신 하나님만 창조주이며, 그 창조주는 '무에서 창조'를 그의 '로고스'(logos)로 창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레니우스는 모든 사물보다 '로고스'가 선재하여다고 주장하였고, 그는 이를 통해 전통적인 창조해석을 강화하는 창조이론이다.

(도표 3) 무---로고스---> 창조

### 다. 오리겐주의에 대한 반응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Origen: 185-251년)<sup>18)</sup>은 성서의 구원관을 후기

를 평민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그래서 후대인들은 이 성서 번역을 「불가타」로 부르게 되었다

17) J. P. Smith, *St. Irenaeus, Proof of the Apostolic Preaching*,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16 (1952); 『이단 논박』은 영지주의에 대한 5권의 반박 논문이다. 첫 책에서는 이성으로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두 번째 책에서는 거짓 '지식'의 특성과 영지주의 역사를 기술하였으며, 세 번째 책에서는 영지주의를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반박하고, 네 번째 책에서는 영지주의를 예수의 어록으로부터 반박하고, 다섯 번째 책은 '천년왕국'의 도래에서 관한 설명이다.

18) 오리겐은 아마도 가장 많은 저서를 남긴 학자이다. 200권 정도의 저서에는 「요한복



플라톤주의의 세계관과 융합시켰다. 오리겐은 다음 두 가지 창조를 이야기한다. 첫째, 성부인 하나님이 잉태한 로고스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고 창조주 하나님만큼이나 영원성을 가진다. 둘째, 육적인 세계, 현상계는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이 현상계는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를 주장한다. 오리겐에 의하면 이 현상계는 다시 영적인 세계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보았다.

오리겐이 육적인 세계인 현상계보다 영적인 세계를 우위에 두었지만 그의 이론은 플라톤의 현상계 생성이론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오리겐 주의'를 반박하고 4-5세기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은 전통적인 주장인 '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창조'를 강조하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300-373; 알렉산더의 주교)는 성부인 하나님이 그 자신과 똑같이 그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도표 4) 성부---> 로고스---> 영적인 세계창조---(타락)--(무)--->  
육적인 세계(현상계)창조

## 라. 기타

초대 교부들은 창조에 대한 주장은 창조에 대한 방법뿐만 아니라 세상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술하였다. 이외에도 6음절으로 이루어진 창조주에 대한 찬양시와 철학적인 주석이 생겨났다. 니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331-395; 갑바도기아의 주교)는 오리겐처럼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시간안에서 질서로 창조할때 나타난 이상적인 하나님 섭리라고 주장한다. 어거스틴(Augustinus: 354-430 북 아프리카의 로마 행정 구역인 누미디아의 주교)도 니사의 창조관을 발전시켜 창조이전, 시간이전의 상태인 *conditio*와 시간과 공간의 배치인 *administration*을 구분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로고스로 이세상을 창조할때, '중요한 원칙'(rationes seminales)를 상정하고, 이 원칙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한다.

---

음 주석)과 성서 번역본 6개를 함께 대조하여 출판한 「헥사플라」가 있다.

(도표 5) 하나님--->(로고스; '중요한 원칙') ---> 세상창조

#### IV. 성서에서의 창조

'성서에서의 창조'라는 말 뜻은 성서에 대한 해석을 후대 학자들의 이론이 아니라, '성서 본문'이라고 여기는 본문을 하나의 '파생된 본문'으로 가정하고, 그 본문에 대한 의미를 존재하지는 않지만 문법적으로 혹은 비교 문학-신화적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원-본문'(imagined Urtext)에서 해석된 창조의 의미를 이른다. 이런 '가상의 원-본문'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자는 1) 고전 히브리어를 포함한 비교 셈족 역사학적 방법론과, 2) 고대근동의 신화를 비교하는 비교 신화-문화적 방법론을 취할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관이 초대교부들의 창조관과 일치하는가? 혹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개역한글판 개역성서』의 번역은 타당한가? 이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2장 3절 전반절까지 나오는 내용 전체에 대한 독립적인 도입문장일수도 있고, 구약성서, 아니 신약성서를 포함한 성서전체의 도입문장일수도 있다. 이런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를 저술했을 때, 이 문장을 독립절로 해석을 했나 아니면 종속절로 해석을 했나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창세기기사에 나오는 '창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둘째, 창세기의 첫 단어인 히브리어 *br'št*를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흔히 '태초'라고 번역하는 '레쉬쓰'(r'št)라는 명사를 문법적으로 무엇인가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어에서 명사는 그 기능과 위치에 따라 '절대형', '연계형', 그리고 '한정형'으로 나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일점 일획도 변함이 없고 완벽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고전 히브리어와 제국 아람어, 『신약성서』는 평민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성서원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이 번역된 성서를 '성서무오설'을 주장하는 것은 사상누박과 같은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점 일획도 변함이 없는' 완벽한 성서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성서의 '원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 보아야 한다.

### 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 '바라'(b-r-')라는 동사는 하나님은 항상 이 동사의 주어가 되며 원 자재에서 만들어진 물건을(예를 들어 '책상')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원 자재(예를 들어 '나무')를 취한다.<sup>1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에서 이 동사가 '무에서의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창세기 2장 4절 전반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 '바라'가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만들다'라는 동사인 '아사'('š-h)가 사용되었다. 칠십인역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로 *poieō*('만들다')나 *kritzō*('만들다')를 사용하였다. 이 두 동사에서도 역시 '무에서의 창조'라는 개념은 없다. 라틴어 불가타의 동가어 *creare*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에서의 창조'의 의미는 없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동사 '바라'가 항상 '무에서의 창조'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한다.

###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번역

'무에서 창조'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br'št*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첫 단어인 *r'št*를 절대명사형으로 해석하여 '처음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고전 히브리어에서 *r'št* '처음', *qdm* '오래전', *clm* '영원'같은 단어들도 부사적으로 사용될 때 정관사 없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구절을 '태초에'라고 해석을 할 때, 이 문장은 독립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번역의 문제는 그 다음절에 나온다. 창세기 1장 2절이 '바하아레쯔'('그리고 그 땅은': *wh'rs*)로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적인 문장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장 2절의 시작인 접속사 '그리고'(*w*)는 독립된 문장을 이끌 수 없으며, 둘째로 '그리고'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2절은 주절을 이끌 수도 있지만 주절을 이끄는 경우에도 대개는 '그리고'라는 접속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2절처럼 명사 '그 땅은'이 나오는 경우는 주절이기 보다는 1절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해석해야 한다.

19)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I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1975, pp. 242-249.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 처음에’라는 번역

창세기의 첫 단어 *br'št*의 특이한 점은 히브리어에 정관사 *h*가 붙어 접두하지 않아 ‘어떤 처음에’ 혹은 영어로 ‘in a beginning’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정관사가 붙지 않는 경우는 히브리어를 포함한 셈어 문장론에서 아주 흔한 용법이다. 이 용법을 필자는 ‘관계사를 생략한 관계 대명사절’(Asyndeton relative clause)라고 부르겠다. 이 용법은 셈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경우 그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선행사의 정관사도 생략된다는 용법이다. 이사야 29장 1절의 히브리어 문장

*qryt dvd hnh*은 ‘다윗이 진친 그 성읍’이라는 의미이다. ‘다윗이 진친’(*hnh dvd*)과 ‘그 성읍’(*qryt*)은 연계형 관계이다. 그래서 그 성읍이 절대형인 *hyrqh*가 아니라 연계형인 *qryt*를 사용하였다. 이 문장은 구문론상, 의미상 *hqryh 'šr dvd hnh (bh)*, 즉 ‘다윗이 진친 그 성읍’과 일치한다.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관계대명사절은 셈족어 전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용법이다. 셈어중 가장 오래된 언어인 아카드어(기원전 2600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쐬기문자로 쓰여진 언어)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bit amilum ibnû* ‘그 사람(*amilum*이 지은(*ibnû*) 그 집(*bit*)’은 관계대명사(*ša*)와 선행사인 집(*bit*)에 정관사를 표시하는 *-um*을 첨가하면 구문론상, 의미론상 동일한 문장이 된다. 즉 *bit amilum ibnû*와 *bitum ša amilum ibnû* 와 의미상 동일한 문장이다.

창세기의 첫 문장도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관계대명사절이다. 1장 1절에서 ‘태초에’(*br'št*)에 정관사가 붙지 않는 이유는 이 단어가 뒤따라오는 문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체와 문법적으로 연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에서 창조’라는 전통적인 해석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라고 번역해야 한다.

1장 2절은 접속사 ‘그리고’(*w*)와 다음에 바로 명사 ‘그 땅’(*h'rs*)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은 1장 1절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그러므로 창조 이야기의 시작은 1장 1절의 접속절(-할 때), 1장 2절의 배경 설명을 위한 부연-삽입절을 제외하면,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이다.

이와 같은 구문은 창세기의 두 번 째 창조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창세기

2장 4절은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 날에’로서, 이 문장도 1장 1절처럼 접속 관계사가 생략된 종속절이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구약성서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의 상태를 전제로 했다. 이와 같은 성서본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그 동안 성서구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초대 교부들, 신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쓰여진 성서언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맨 처음을 필자가 번역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다.

-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 2절 (그때에) 땅이 매우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강한 바람은 물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면 어떤 창조인가?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가 태동된 고대근동이란 모체를 살펴 보아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이 고대근동의 일부였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창조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대근동이 가졌던 창조에 대한 사교의 공통성을 살펴보면, 당연히 창세기만 가진 성서 창조기사의 독특성이 드러날 것이다.

## V. 고대 근동의 『에누마엘리쉬』

창세기 1장과 유사한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토판문서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독특한 그들의 신의 창조관을 담은 『창세기』에 위협이 되는 이야기로 여겼다. 성서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들에 대해 편견된 견해를 가지도록 종용받았으며 종래에는 성서의 창조기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이야기를 곡해해 왔다. 오늘날에도 일부 보수 개신교, 가톨릭교, 그리고 유대인 성서학자들의 이러한 변증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럼 우리는 이런 변증론적인 해석이 성서 본문의 의미인가를 질문하여야 한다. 오히려 성서 밖에서 발견된 유사한 창조기사는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성서가 창세기 1장-3장과 시편, 욥기, 그리고 제 2 이사야서와 그 밖에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창조주와 창조에 대한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이 공유했던 고대 근동이라는 모체와 심지어는 오늘날 성서를 읽는 독자에게까지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

1875년 대영박물관에서 바빌론으로 파견된 조지 스미스(George Smith)는 그곳에서 발견된 20개 정도의 토판 문서가 구약성서 창세기 1-2장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사실을 영국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에 편지를 보내 알리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신화라고 알려진 『에누마 엘리쉬』가 처음으로 유럽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1880년 『갈대아의 창조이야기』(The Chaldean Account of Genesis)라는 이름으로 『에누마 엘리쉬』를 출판하였다.

『에누마 엘리쉬』는 일곱개의 토판문서로 이루어진 총 1100행의 이루어진 시이다. 기원전 1900년부터 구전(oral tradition)으로 내려오던 이 서사시는 기원전 1100년경 문전(literary tradition)으로 고정되었다. 다음은 『에누마 엘리쉬』의 제1 토판의 첫 9행들이다.

- 제1토판 (1) 위로 하늘이 아직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고  
 (2)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을 때,  
 (3) 태고의 압수(Apsû), 그들의 아버지,  
 (4)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 티아맛(Ti'āmat)이  
 (5) 그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6) 그 때에는 들판이 형성되지 않았었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7)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고,  
 (8) 어떤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9) 신들이 그들 가운데서 창조되었다.

## VI. 고대 근동자료에서 본 창세기 1장 1-3절 번역

### 가. '...할 때'로 시작하는 『에누마 엘리쉬』

여기서 (1)과 (2)행은 태초에 우주의 창조이전을 (1)행의 '하늘'과 (2)행의 '땅'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은 상태로 언급한다. 사물이 이름으로 불려

지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고대 근동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고대근동의 창조신화의 시작은 창조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종속절이나 부사구로 시작한다. 영어의 *Once upon a time*, 라틴어의 *illō tempore* (in that time) 한국어의 '옛날 옛날에'처럼 『에누마 엘리쉬』도<sup>20)</sup> 아카드어로 *enūma eliš* 즉 '위로 ...할 때'로 시작을 하였다. 『창세기』나 『에누마 엘리쉬』 모두 시작이 종속절이다.

#### 나. '티아맛'여신과 성서의 '깊음'(tehōm)

두 창조 이야기의 유사점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에서 더욱더 확실히 드러난다. 『에누마 엘리쉬』에서 우주의 혼돈의 상태를 '태고의 압수'(Apsū-ma reštu)와 '모체 티아맛'(mummu Ti'amat)이 '그들의 물을 하나로 섞은 상태'(mūšunu išētniš ihīqū-ma)로 묘사하고 있다.

『에누마 엘리쉬』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두신은 '지하수', '담수'를 상징하는 '압수'와 '바닷물'을 상징하는 '티아맛'이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태고적부터 아르메니아에서 발원하여 수천 km를 흐르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페르시아만의 바닷물과 만나 영켜 엉망진창이 되는 상태를 혼돈이라 보았다. 이때에 계획된 농지 구간을 상징하는 들판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후에 썩기문자의 필기도구의 재료와 관련이 있는 갈대밭도 없었다고 제 6행에 묘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절, 성서의 창조이전 혼돈 상태의 묘사와 유사하다. 2절에 창조이전의 상태를 '(그때에) 땅이 매우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라고 묘사하고 있다.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대비시켜 전체를 총칭하는 문학적인 예로, 그리스어 *kosmos* 혹은 라틴어 *universum*과 같은 '우주; 온 세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1장2절의 '땅'은 1절의 '땅'과는 다른 고대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보았던 '땅'을 의미한다. 그 땅은 강물인 '압수'와 염수인 '티아맛'이 영켜 땅에 혼돈을 야기시킨 것처럼, 성서기자도 '(그때에) 땅이 매우 혼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바로 이어 성서기자는 '어둠이 깊음(tehōm)위에 있고'라고 고백한다. 여

20) 배철현, 『에누마 엘리쉬: 마르독신과 바빌론시에 대한 찬양시』,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49-106.

기에서 '깊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테흠'(təḥōm)이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 35번 나오는데 21번은 단수로, 14번은 복수로 언급되고 문법성으로 대개 여성으로 사용되지만 남성으로도 사용된다. '테흠'(təḥōm)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편』 106편 9절과 『이사야』 63장 13절을 제외하고는 정관사가 접두하지 않아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된 점이다. 『창세기』 49장 25절, 『신명기』 49장 25절, 『하박국』 3장 10절처럼 의인화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이사야』 51장 10절에서는 신화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혼돈의 여신이며 바닷물을 상징하는 '티아맛'과 『창세기』의 '테흠'은 어원적으로 같다. 『에누마 엘리쉬』에서의 티아맛은 후에 등장하는 질서와 창조의 신인 마르둑(Marduk)과 싸우는 혼돈의 여신이나, 성서에서의 '테흠'은 파괴를 일삼는 혼돈의 여신이 아닌 단순한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이 『에누마 엘리쉬』와 『창세기』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창세기』의 '테흠'은 『에누마 엘리쉬』의 '티아맛'을 차용한 것인가? 창세기 기자가 『에누마 엘리쉬』를 보고 베낀 것인가? 그 해답은 이 두 단어를 다음과 같이 어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창세기』 '깊음'(təḥōm)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원 썸어(Proto-Semitic)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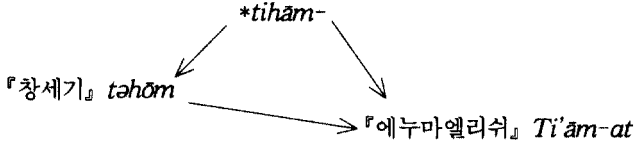
(도표 6)  $təḥōm < *tīhām$

\*tīhām이란 단어는 성서 히브리어 단어 təḥōm을 언어학적으로 유추하여 재구성한 원-썸어(Proto-Semitic)형이다. 이 \*tīhām을 동 썸어인 아카드어로 쓰여진 『에누마 엘리쉬』의 Ti'āmat과 비교해 보자.

(도표 7)  $Ti'āmat < *tīhām-at$

\*tīhām-at는 \*tīhām에 여성형 어미 -at를 첨가하였다. 실제로 아카드어에서 tātum(<\*tīhām-tum)은 '바다'라는 의미이다. 『창세기』의 '테흠'과 『에누마 엘리쉬』의 '티아맛'은 같은 어원 \*tīhām-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다시 어느 단어가 오래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도표 8)

언어학상 『에누마 엘리쉬』의 *Ti'am(-at)*에서 *tahō:m*를 유추할 수는 없다. 음운론상 아카드어의 '알렙'이 히브리어의 h(헤)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창세기』의 '테흠'은 『에누마 엘리쉬』의 '티아맛'에서 유래 했다고 보다는 고대 근동 전체에 공통의 신화소(mytheme)로 오히려 『창세기』의 '테흠'이 『에누마 엘리쉬』의 '티아맛'보다 원형을 지니고 있다.

#### 다. '티아맛'을 쳐부수는 무기 '바람'

『에누마 엘리쉬』에서 질서의 신이며 창조와 신인 마르둑(Marduk)이 혼돈의 여신인 '티아맛'과 전쟁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 제4토판 (93) 티아맛과 신들의 보호자인 마르둑이 다가와  
 (94) 그들이 전쟁을 하였다; 그들이 전쟁을 위해 다가왔다.  
 (95) '벨'(마르둑)은 그의 그물을 펼쳐 그녀를 감쌌다.  
 (96) 그녀의 얼굴에 그는 자기 뒤에 있었던 임홀루-바람을 일으켰다.  
 (97) 티아맛을 입을 열어 그 바람을 삼키려했다.  
 (98) 그러자 그는 임홀루-바람을 더욱 세게 일으켜 그녀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99) 강한 바람이 그녀의 배를 당겼다.

'바닷물'을 상징하는 '티아맛'을 무찌를 무기는 마르둑신의 할아버지인 아누신(하늘신)이 준 4개의 바람이었다. 이 바람으로 엄청난 혼돈을 야기 시키는 흉흉한 바닷물을 몰아내 마른땅이 드러나게 한다. 이 주제는 성서에서도 자주 반복된다. 창세기에 물을 나누어 한곳에 모아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창세기 1장 9-10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큰 동풍을 일으키어 '갈대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나오게한 사건(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때 주님의 궤가 지나갈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벽처럼

선 사건(여호수아 3장 13절)은 모두 혼돈을 상징하는 물이 '바람'에 의해 '정복'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창세기 1장2절의 '강한 바람은 물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라는 표현은 바로 혼돈을 상징하는 물이 '강한 바람'에 의해 걷쳐, 마른땅이 드러나게 되는 창조의 사건으로 이어져 있다.

## V. 나가는 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아는 '무에서의 창조'는 초대 교부들이 플라톤 철학에 대항하여 만들어 낸 이야기이다. 창세기 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초대 교부들이나 후대 신학자들의 불완전한 이해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교리이다. 성서 히브리어와 셈어 그리고 고대 근동인들의 세계관을 읽어낼 때, 『창세기』의 독특성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구약성서는 고대근동의 언어, 문화, 역사, 신화와의 공통성(continuity)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만, 구약성서의 비공통성(discontinuity)과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무에서의 창조'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창조적 신앙의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무'가 아니라 '혼돈'이기 때문이다.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처럼, 인간의 창조적인 삶은 혼돈과 어둠을 이겨 질서와 빛으로의 정진이라고 성서기자는 성서의 맨 처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대한성서공회, 1956, p.1.
- 배철현, 「에누마 엘리쉬: 마르독신과 바빌론시에 대한 찬양시」,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49-106.
- 배철현, 『타르쿰 웅켈로스 창세기』, 한남성서 연구소, 2001, p. 115.
- 배철현,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기독교사상>> 520권, 2002/4, pp. 189-198.
- 『성서전서 표준새번역』, 1993, 대한성서공회, p. 1.
- 『표준국어 대사전』, 하, 두산동아, 1999, p. 596.
- H. Chadwick, *Early Christian Thought and the Classical Tradition*, Clarendon, 1966, pp. 31-65.
- M. Cornford, *Timaeus*, Library of Liberal Arts, 1959.
- R. M. Grant, *Theophilus of Antioch: Ad Autolyicum*,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G. F. Hawthorne, "Tatian and His Discourse to the Greeks",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57, 1964, pp. 161-188.
- Irenius, *Against Heresies 1-2*, tr. P. Holmes, *Anti-Nicene Father*, vol. 1, 1885, pp. 315-413.
- Origen, *The First Principles* 3.5, tr. G. W. Butterworth, *Studia Patristica*, 1936.
- Tartian, *Address to the Greeks* 5, tr. J. E. Ryland, *Ant-Nicene Fathers*, vol. 2, 1885, pp. 59-83.
- Theophilus of Antioch, *To Autolyicus 10-18*, tr. M. Dods, *Anti-Nicene Fathers*, vol. 2, 1885, pp. 85-121.
- Turtullian, *Against Hermogenes*, tr. P. Holmes, *Anti-Nicene Fathers*, vol. 3, 1887, pp. 477-502.

<Abstract>

## Creatio Ex Nihilo?

Bae, Chul-Hyun

A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doctrine called "Creation ex Nihilo" was drafted as Christian doctrine on Creation in response to contemporary theories on Creation, including Platon's "demiurge" concept and agnosticism in Early Church. In order to make a distinction from various contemporary explanations about 'creation', Early Church fathers and theologians crafted an ad hoc doctrine, called "Creation ex Nihilo", which is still accepted among many Christians. In this paper, the writer argues that the creation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surpress many mythological motives by changing divine names into things. The auther tries to prove this creation story on the basis of comparative Semitic philology, comparative mythology.